

호 스 (Hose)

호스란 말은 독일어의 "Hose" 에서 온 것이다. 물을 가죽 파이프를 사용하여 送水하는 것은 옛날부터 행해져 왔다. 그러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送水하는 파이프를 호스라고 부르게 된 것은 17 세기가 되고나서이다. 1672 년 독일사람 "하이뉴먼"은 소방 펌프와 노즐 선단을 가죽호스로 연결하는 것을 고안하였다. 그때까지의 소방펌프에서는 부속 탱크에 바케트로 물을 넣고 펌프에 고정된 노즐선단에서放水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화재 현장에 노즐선단에서 물이 미치는 거리에 소방 펌프를 두고 소화작업을 하여야 되었기 때문에 위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소에 따라서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 호스의 발명으로 소방 펌프를 水源에 두고서도 화재 현장까지 호스를 늘임으로써 소화작업이 손쉬워져放水 方向도 자유로이 바꿀 수 있게 되어 소화 활동에 뛰어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 <가죽호스>

최초로 사용되었던 호스는 가죽호스로 가죽을 기워서 이었기 때문에 漏水가 심하고 휘기도 불편하였다. 이러한 호스가 150 년 정도 사용되었는데 그후 필라델피아시의 미국인 "셀러스" 와 "펜노크" 두 사람이 이은 부분을 리베트로 결합하는 호스를 고안하였다. 1819년에는 런던의 "자콥·퍼킨스"가 가죽 호스를 개선하여 구리리베트를 사용하여 防水 호스를 완성하였다. 가죽 호스는 이은 부분이 많아, 마찰때문에 물이 호스 내를 흘러가는 도중에 펌프가 준 水壓이 거의 상실되는 결점이 있었다. 또 가죽이 두껍고, 무거웠고 1本の 호스 길이는 40 feet (12.8 m) 로 되어 있었다. 직경 2 inch, 길이 40 feet 의 가죽 호스의 무게가 48 1/2 파운드 (22kg)에서 52 파운드 (24 kg)이기 때문에 현재의 호스의 3~5 배의 무게였다.

가죽 호스는 튼튼하여 수명이 50 년이나 되는 이점이 있으나 휘기가 불편하고 조작성이 곤란하여 감을 수가 없고 수송도 불편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름을 발라, 휘과 防水를 유지시키는데 수고가 많이 든다.

• <麻호스>

1874 년경이 되어 호스 재료로서 亞麻호스는 手織이었는데, 1885 년경부터 기계직이 가능해졌다. 그래도 手織이 성능도 좋고 가격도 낮았지만 장시간 소중히 사용되었다. 그 후 호스 재료로서는亞麻외에 大麻, 綿絲가 사용되고 최근에는 화학 섬유와 고무가 사용되게 되었다.